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담당 이제현 Tel 055-320-6832 imperator@korea.kr
	■ 2020. 8. 10. 배포 ■ 붙임: 홍보물 ■ 총 2매

사람이 있는 문화

국립김해박물관 2020년 두 번째 가야학술제전 가야 선주민의 무덤 “영남의 지식묘 사회” 개최

국립김해박물관(관장 오세연)은 2020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의 두 번째 순서로 가야 선주민의 무덤 ‘영남의 지식묘 사회’를 8월 14일(금) 국립김해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청동기시대 무덤으로 알려진 지식묘는 그동안 형식 분류, 조성 시기, 사회발전단계에 초점을 맞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영남지역 지식묘의 기원과 출현, 사회상, 변한 사회로 전개 양상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가야 건국 이전 구간(九干) 사회의 대표적인 무덤인 지식묘를 재조명하여 이를 만들었던 가야 선주민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기획하였다.

‘영남지역 지식묘의 기원과 출현’, ‘영남지역 지식묘 문화의 변화와 사회상’, ‘김해지역 지식묘 사회’, ‘고대산만 지식묘 사회와 다호리 집단’ 등 4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가야 성립의 토대를 이루었던 지식묘 사회와 가야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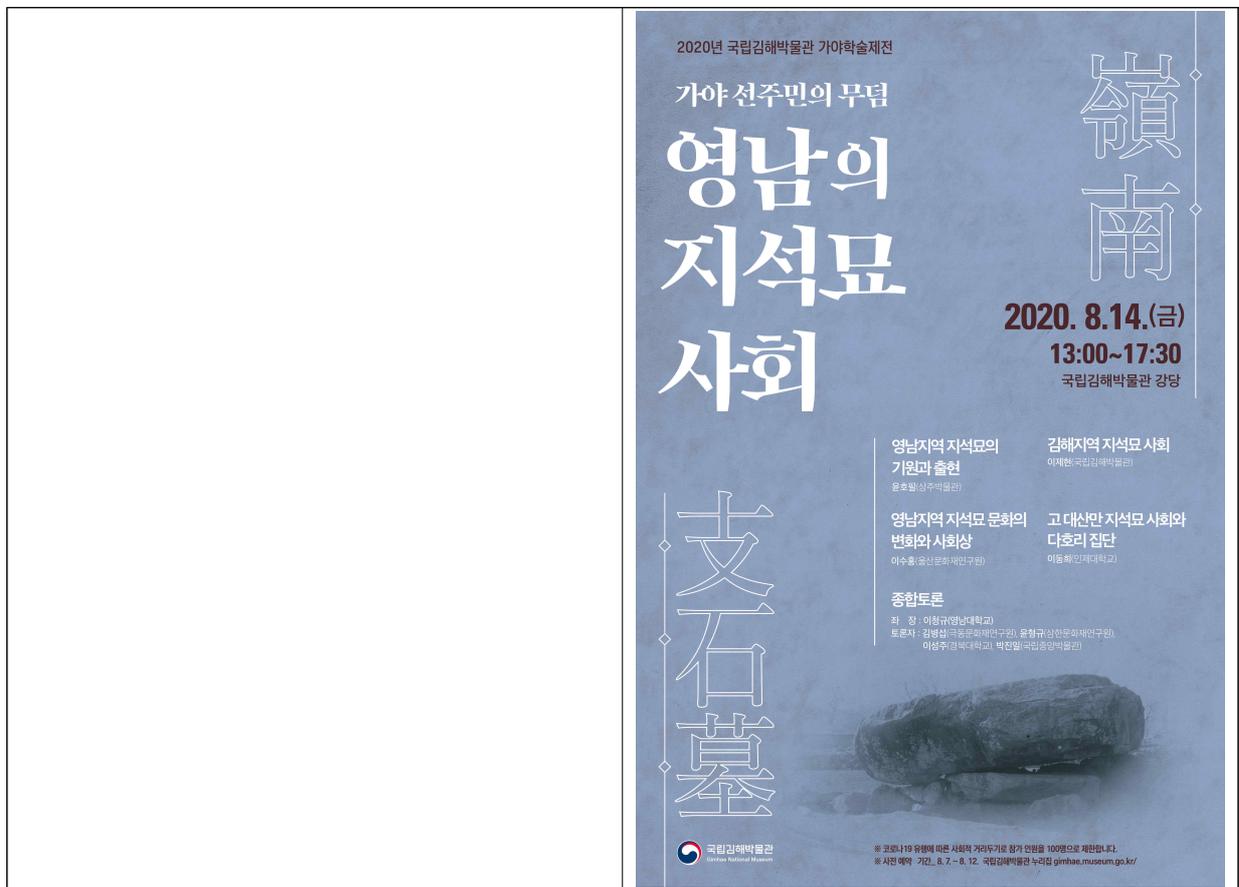
이번 심포지엄은 8월 14일(금) 오후 1시부터 국립김해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 사전예약은 국립김해박물관 누리집 (<https://gimhae.museum.go.kr>)에서 8월 7일(금) 오전 9시부터 8월 12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명이 완료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은 가야문화 복원에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심포지엄이다. 이번 심포지엄 이후로도 '가야의 주거문화(9월 25일)', '가야와 삼국시대 금동관 비교연구(10월 16일)', '가야의 찰갑-복원과 연구과제(11월 20일)'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가야문화 연구와 복원의 초석이 될 가야학술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p>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담당자 이제현(055-320-6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붙임> 2020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포스터

붙임1. 홍보물



2020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가야 선주민의 무덤
영남의 지석묘 사회

2020. 8.14.(금)
13:00~17:30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영남지역 지석묘의 기원과 출현
홍호필(상주박물관)

영남지역 지석묘 문화의 변화와 사회상
이수홍(울산문화재연구원)

김해지역 지석묘 사회
이제현(국립김해박물관)

고대신만 지석묘 사회와 다중리 집단
이동환(인제대학교)

종합토론
주최: 이항규(영남대학교)
토론자: 김형일(국립문화재연구원), 윤항규(상인문화재연구원), 이상규(경북대학교), 박연필(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Gyeonghae National Museum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가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합니다.
※ 사전 예약 기간: 8.7. - 8.12. 국립김해박물관 누리집 gimhae.museum.go.kr/